



황기

작물명과 생약명이 동일한 황기는 주로 뿌리를 이용한다. 주요 효능은 강장작용(强壯作用), 이뇨작용(利尿作用), 항균작용(抗菌作用)이다.

안태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약용작물과



시들음병 피해 ● ● ●

여름철 장마기 배수가 잘되지 않는 점질토양에서 발생이 빈번하며 경사지 재배시에도 배수관리가 잘 되지 않아 물고임이 지속되는 포장 하부에서 발생이 심하다. 발생 초기에는 식물체가 전체적으로 시들고 식물체의 아랫 잎부터 노랗게 변하고, 점차 위쪽으로 진전되다가 심해지면 식물체 전체가 황갈색으로 마르고 고사한다.

발병초기에 지제부의 줄기를 잘라보면 도관부가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들음병 등 토양전염성병원균에 의한 병은 발생 후 방제가 쉽지 않으므로 배수상태 등 토양 물리성을 고려한 포장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뿌리썩음 피해 ● ● ●

연작지나 2년근 이상의 다년근 황기를 생산하기 위한 밭에서 많이 발생한다. 토양전염성균인 푸사리움균 등에 의해 발생하며 뿌리가 변색되어 썩으며 식물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한다. 여름철 장마기 토양수분 함량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 발병이 조장되는데 일반적으로 병의 진전이 서서히 진행되므로 외관상으로 피해유무와 정도를 구별하기가 힘들다. 다년근 재배시 피해정도가 심해지므로 되도록 연작을 피하고 여름철 배수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대책이 요구된다.



흰가루병 피해 ● ● ●

재배시 가장 문제 병해인 흰가루병은 주로 잎에 발생하여 표면에 밀가루를 뿌려 놓은 듯한 병징이 생기며 심해지면 잎자루, 줄기까지 발생이 확대된다. 비교적 고온이고, 약간 건조한 상태에서 병 발생이 심한데 주로 장마기에 전염이 되며, 장마 후 온도가 높고 약간 건조한 상태에서 발병을 보인다.

재배년수가 증가할수록 병발생이 심해지므로 발생초기 등록약제로 방제하고 병든 잎이나 식물체 전체를 조기에 제거하여 병 발생이 확대되는 것을 막도록 한다.



응애류 피해 ● ● ●

잎에 발생하며 점박이응애와 차응애가 피해를 준다. 일반적으로 종자 파종 후 당해 년도 1년생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으나 2년생 이상의 다년근을 재배시에 해마다 발생 밀도가 증가되어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잎 뒷면에 발생하여 가해하며 병징은 초기에는 흰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고 점차 황색으로 변하면서 잎 전체가 말라죽는다. 발생이 가장 심한 때는 여름철 고온건조한 시기이다.



선충 피해 ● ● ●

황기는 작약과 더불어 선충류에 의한 피해가 심한 작물로 황기를 기주로 하는 선충류는 당근뿌리혹선충을 비롯해 지금까지 10여종 이상이 보고되어 있다. 주로 연작재배시 밀도가 늘어나 피해가 증가하며 뿌리 속에서 생활하므로 양분과 수분 흡수가 저해되어 생장이 부진해지고 피해 받은 뿌리는 수많은 혹이 생기거나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하여 상품성이 저하되게 된다.

가급적 선충의 이동성이 좋은 사질토에서의 재배를 피하며 이전 작물에서 선충류의 피해가 있었던 밭은 피하도록 한다. 휴경하면서 심경을 해주면 표토층에 주로 서식하는 선충의 밀도가 감소되어 추후 황기 재배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